

## &lt; 여기서 뛰어라! - 지금 이곳의 젊은 미술 &gt;

## 7. 공간에 파생되는 입체들

조각은 3 차원의 공간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다. 회화가 평면이란 공간에 서식한다면 조각은 공간에 존재한다. 허깨비나 가짜, 눈속임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자 부정할 수 없는 세계다. 실재하는 현실세계에 실감나게 자리하고 있는 조각은 그래서 회화에 비해 그 리얼리티나 현존성이 강하고 크다. 아울러 시각에만 응대하기 보다는 촉각과 물리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성을 지녔다. 그것은 환영에 머물지 않고 몸의 총체적인 반응과 마주한다. 사람들은 조각 앞에서 돌아다닌다. 서성이고 맴돌고 가까이 가보고 뒤로 물러나고 슬쩍 만져 보기도 한다. 공간에 '사건'을 일으키고 그 주변으로 사람의 몸을 불러들이는 이 조각은 애초에 인간의 몸을 대체한 불멸과 불사의 상징이었다. 말랑거리는 살을 대신해 단단한 돌이나 나무의 피부 위에 새겨진 몸들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보는 이들의 눈앞에 자리했다. 공공의 장소에 기념비적으로 자리한 전통적인 조각상들 역시 그 크기와 위용에 의해 특정한 권력과 이름의 무게를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하기도 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 크기와 질량감은 그 공간을 또 다른 공간과 의미의 장으로 파생시킨다. 오랫동안 조각은 커다란 규모와 중량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증거 했다. 기억을 저장하고 각인하는 한편 이데올로기를 후광처럼 드리운 기념비적 조각상들이 이제 다른 조형물로 대체되는 한편 전시장이란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조각의 크기와 부피는 불가피하게 조정되었다. 집단적인 기억과 추모,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조각이 그 임무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이제 회화와 함께 나란히 배열되고 걸리고 놓이는 선으로 조정되었던 것이다. 눈높이의 감상 내지는 내려다보는 조각의 등장, 나아가 벽면뿐만 아니라 바닥이나 천장으로 까지 퍼져나가는 조각 등이 이제 전시공간을 주된 삶의 터전으로 삼았음을 알려준다. 이후 전시공간에서 다시 일상의 공간으로 전이되는 한편 또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는 조각의 생애를 본다. 오늘날 조각은 무엇보다도 조각의 남근주의를 버리고 작고 가볍고 부드럽고 나아가 비물질적인 경지를 꿈꾸기도 한다. 작고 미세하다는 것은 자기 존재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묻히고 다른 사물들과 동일화되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시각에 독점되기보다 인간의 몸에 보다 근접하는 것이며 물질성보다 존재성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조각은 이미지이기 전에 물질이다. 따라서 조각을 이루는 그 재료의 물성이 무엇이나를 질문하는 것이 현대 조각이다. 동시에 조각은 공간에 놓인 하나의 물질 덩어리가 어떻게 인간의 신체에 반응하는가, 어떤 지각을 형성하는가를 고려한다. 조각은 3 차원의 공간에 실재하는 물질이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회화가 2 차원 평면에 가상으로 형성된다면, 조각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조각은 회화에 비해 그 리얼리티나 현존성이 강하고 크다. 그것은 환영에 머물지 않고 몸의 총체적인 반응과 마주한다. 사람들은 조각 앞에서

돌아다닌다. 서성이고 맴돌고 가까이 가보고 뒤로 물러나고 슬쩍 만져보기도 한다. 공간에 '사건'을 일으키고 그 주변으로 사람의 몸을 불러들이는 조각은 애초에 인간의 몸을 대체한 불멸과 불사의 상징이었다. 말랑거리는 살을 대신해 단단한 돌이나 나무에 새겨진 몸들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보는 이들의 눈앞에 자리했다. 공공의 장소에 기념비적으로 자리한 조각상들 역시 그 크기와 위용에 의해 특정한 권력과 이름의 무게를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하기도 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 크기와 질량감은 그 공간을 또 다른 공간과 의미의 장으로 파생시킨다.

현대조각은 모더니즘 미술의 매체적 패러다임에 의해 조각의 실체를 순수한 형태로 보았다. 구상적 전통과 형상과 배경이라는 회화적 관습(회화주의)을 넘어서는 조각을 추구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좌대의 상실이다. 좌대의 사라짐은 기념비의 기념공간에서 보는 이의 행동공간으로 변화한 사건이다. 본래 서구전통조각은 특정 장소에 놓여 그 장소의 의미와 사용에 관해 상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 다시 말해 기념비적 조각이었다. 좌대상실에 따라 모더니즘조각은 추상적인 형태와 발견된 소재를 통한 조각이 되었다. 그러니까 뒤상 이후 조각은 인식론적 탐구(레디메이드)와 건축적 개입(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위치 되었다. 이는 조각으로서의 자체 담론이 해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좌대상실은 장소를 초월하게 해주었다.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조각은 장소특정적 조각이 되었다. 오늘날 조각은 실제 물질이나 프로젝트와 장소라는 상황적 조건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대상에서 주체로, 매체의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에서 특정한 공간에 위치한 특정한 몸에 대한 현상학적 조건으로 이동한 것이다. 물질성과 신체성, 시간성에 대한 주목이 새롭게 부각된 것이다.

따라서 조각의 전통적인 대상이 변형되었고 물리적인 장소가 가장 본질적인 작업의 요소가 되었으며 관객의 몸과 신체적 움직임의 시간(조각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관객의 시차적 경험, 즉 보는 위치에 따라 대상의 위치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정 관객의 동기화를 통해 특정 장소 place 의 지형을 (재)규정하는 주체와 장소 site 간의 릴레이”로서의 조각!

이제 조각이란 몸을 동기화하고 장소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물질을 구조화하는 것이 되었다. 이미 1970년대 이후 현대조각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